

# 51개국 중 간암 사망률 최고

현대인의 무서운 질병,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의 벗」에서는 국가 5대암에 대해 기획·연재할 계획입니다.

1. 위 암

**2. 간 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 종 류

간암은 간내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간세포암, 담관암이 가장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간세포암이 간암의 9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암에 의한 사망 원인으로 위암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 발생빈도

간에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은 간세포암이며 일부에서 담관세포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 및 진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간암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군으로는 간경변증과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들 수 있습니다. 간경변증 환자의 3~5%, 만성 간염 환자의 약 1% 정도에서 매년 간세포암이 발생하고, 간세포암의 60~90%에서 간경변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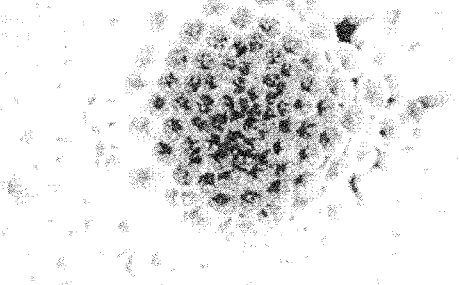
특히 B형 및 C형 만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의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간경변증에 비하여 높은 간세포암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암은 지역간에 발생수준의 차이가 많습니다. 간암의 발생지역을 보면 대도시 지역보다는 소도시나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활방식이나 생활환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간암발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원 인

간암이 많은 이유는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분포를 보아도 극동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중국 등에서 높은

이미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와 같이  
간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정기검진과 이를 통한 조기발견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만이 최선입니다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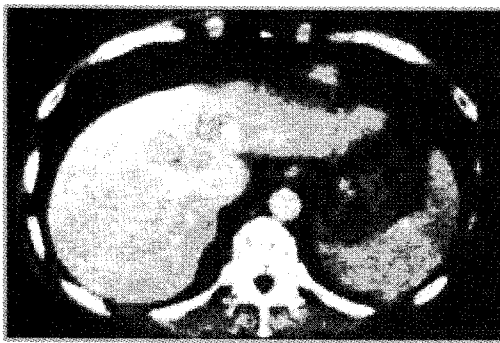
최근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남자는 30명, 여자는 7명 정도의 높은 발생률을 보고하였고, 특히 중장년층(40~64세)의 간암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만성간염과 간경변증을 거쳐 간암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염예방이 간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1998년 암환자 발생률을 보면 남자의 간암발생률은 전체의 16.4%로 위암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6.5%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예방 및 치료**

간암은 우리 나라에서 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처럼 간염바이러스의 보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환자가족에게 예방주사 등을 통한 예방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신생아기나 유아기에 감염된 B형 간염의 대부분이 만성간염 내



[간암의 CT촬영]

지는 보균상태로 진행되어 높은 간경화발병률을 야기하므로, 보균자 산모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는 확실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와 같이 간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정기검진과 이를 통한

조기발견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만이 최선입니다.

인체의 해독공장이라고 불리는 간은 인체의 장기 중에서 회복능력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비해 쉽게 해를 입어 일단 적정 수준을 넘으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맙니다. 지나친 음주 및 흡연 그리고 적정한 휴식 없이 밤낮을 가리고 앉고 일하는 일 중독증 때문일까요? 불행히도 한국인의 간암 사망률은 세계 최고에 이릅니다.

9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10만명당 23.4명이 간암으로 사망하는데, 이것은 성인 남녀를 통틀어 조사대상 51개국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65세 이상에서 간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PPFK